

# 경찰, 치매노인 실종 예방대책 걸돈다

### GPS 위치추적 가능한 배회감지기 보급 저조 질환 특성·기기값 부담 등 고려않고 추진 인식표 보급도 실효성 논란... 전시행정 지적

실종·가출하는 치매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도,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 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환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찰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3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 노인들의 실종·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2월부터 실종·가출한 치매노인 위치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배회감지기를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무선호출기(삐삐) 만한 크기로 보통 끈으로 묶어 치매 환자의 목에 걸거나 주머니 속 혹은 벨트에 끼워 사용할 수 있다. 위성항법장치(GPS)가 내장돼 있어 경찰관이나 보호자는 스마트폰으로 치매 환자가 있는 위치와 주소를 지도와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미리 설정해 놓은 안심지역 3곳을 벗어났을 때는 보호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도 전송된다.

장기요양등급(치매등급)을 받은 노인의 경우 가입비 9000원에 연간 사용료(3만 5640원) 외에 분실할 경우 1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노인의 경우 25만원의 기기값 등 최대 50만원 수준을 지불해야 한다.

그나마 환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기라는 게 가족들이나 요양보호사 등의 설명이다.

치매 환자들의 경우 인식표가 달린 팔찌, 목걸이 등 몸에 거슬린다 싶은 것들을 귀찮아하는 행동 특성이 있는 탓에 배회

감지기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는 것이다. 고스란히 치매 환자임을 드러내게 될 뿐 아니라 기기를 분실할 경우 보호자가 물어내야 하는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광주·전남지역 2만5000여명의 등록 치매환자 중 40명만 사용하는 등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경찰청은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고 나서면서 현장에서는 ‘환자 가족들에게 외면으로 전락한 것 같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던 ‘치매노인 인식표’ 보급 사업도 일회성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치매노인 인식표 보급 사업은 경찰청 전화번호와 치매 노인 성명·주소·보호자 연락처 등을 코드화한 일련번호를 인식표에 넣어 보급한 것으로 광주·전남 치매노인 2500명에게 지급된 게 전부다. 환자 가족들에게 외면받다보니 치매 노인 실종 사건을 수사할 때 인식표를 활용, 발견했다는 등 효과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 경찰 관계자는 “치매 특성이나 환자 가족 심정은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책 시행 전 현장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광주·전남에는 각각 4991명, 1만9557명의 치매 노인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 등록된 치매노인은 26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천 모기 퇴치 방역

23일 오전 광주시 북구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임동 광주천 산책로 일원에서 모기 퇴치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교육청, 흥복학원 이사 9명 승인 취소

### 임시이사 선임 절차 돌입

흥복학원 이사들에 대한 임원 승인이 결국 취소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사학비리로 잡음이 끊이지 않은 흥복학원에 대해 임시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개최한 ‘학교법인 흥복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정문회’ 결과, “광주시교육청의 결정이 재량권 남용은 아니다”는 결론이 나면서 흥복학원 이사 10명 중 9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흥보학원 측에 통보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흥복학원 이사들이 설립자 이흥하(76)씨의 대여금 변제를

위해 토지를 사들이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다음달 초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등 지역사회에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임시이사를 추천할 방침이다. 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임하게 된다.

이에 대해 흥복학원은 반발하고 있다. 흥복학원은 조만간 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흥하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2013년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아내 살해 유기 7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 광주고법 선고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3일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황모(74)씨에 대

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1971년에도 당시 아내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다시 같은 범행을 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측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진도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당시 62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해남의 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동구청장에 뇌물 준 업자 항소심 첫 재판서 법정구속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업자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추석을 앞둔 8월 중순께 주치장 사업권을 탈락

청탁하며 노 구청장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홍삼, 과일 등을 대신 선물한 혐의로 기소돼 노 구청장, 노 구청장의 측근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5월 26일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보험 비급여 성형 수술·다이어트 시술 등 급여 치료 둔갑

### 광주지역 병원 2곳 의료법 위반 수사

#### ‘사무장 병원’ 가능성 연루자 300명 이를 뜻

경찰이 보험 비급여 항목인 성형수술, 다이어트 시술 등을 보험 급여 치료로 둔갑시켜 의료 행위를 해온 혐의를 잡고 광주지역 병원 2곳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특히 해당 병원이 모두 의료생협

형태로 운영되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 ‘사무장 병원’일 가능성이 크고, 의사와 환자를 포함한 연루자가 최대 3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23일 광주 A성형외과 의원, B한방 의원 등 2곳의 병원을 상대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해당 병원 2곳과

보험사 1곳 등을 입수수색해 진료 기록과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어 환자와 의사 등을 불러 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보험금 청구 여부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성형수술을 주로 하는 A의원과 한방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하는 B의원이 질병이나 부상 치료가 아님에도 환자와 짜고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록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 등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입수수색 과정에서 의료생협 형태로 운영되는 A·B 의원에 출자한 조합원 명단을 확보,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는지, 조합원이 아닌 허용 가능한 일반인의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등 위법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의료 생활협 병원 설립이 가능한데다 관계 당국의 감시도 느슨한 탓에, 조합원 명단을 가져다 만들어 설립 요건을 갖춘 불법 사무장 병원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형호기자 khh@

## 다른 손님 석쇠 슬쩍한 60대, 마트 CCTV에 찍혀 달미



○대형 마트 계산대에서 다른 손님이 구입한 석쇠를 자신의 것인 양 가져 간 60대 남성이 CCTV로 달미.

○2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64)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계림동 H마트 계산대에서 오모(38)씨

가 구입한 석쇠(9만원 상당, 가로 0.5m·세로 1m)를 그대로 들고 갔다는 것.

○이씨는 석쇠를 가져가는 모습이 마트 CCTV에 찍혀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아내와 장을 본 뒤 옆 계산대를 보니 옆 손자가 놓여있어 무심코 들고 갔다”며 때늦은 후회.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 600g 120,000원
- 생물 절편 300g 40,000원      ● 한 1kg 360,000원
- 600g 80,000원      ● 생물 1kg 100,000원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전남 화순읍 화순읍 대리 508-2      010-2632-7799